

신남방정책과 중소기업 참여방안

| 외부 필진 보고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박번순 경제통계학부 교수 | 고려대학교

목차

1. 신남방정책의 내용과 배경	02
2. 신남방 국가의 경제현황과 특성	04
3. 한국과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협력	09
4. 한국 중소기업의 참여방안	14



고려대학교 박번순

1. 신남방정책의 내용과 배경

가. 신남방정책의 내용과 의의

- 신남방정책은 정부의 새로운 대외경제구상인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서 신북방정책과 함께 양대 축을 형성함.
 - 신남방정책은 일차적으로 동남아 10개국(아세안)과 이를 연결하는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를 대상으로 경제협력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자는 것임.
 - 신남방지역에서 아세안은 인구 약 6.4억 명, 인도는 13억 명으로, 아직 1인당 소득이 낮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 경제권임. 이들과 호혜적인 협력의 증진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임.
- 신남방정책은 먼저 아세안과 기존의 경제협력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더불어 번영하는 미래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임.
 - 2017년 11월 아세안을 순방한 문재인대통령의 구상에 의하면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음. 이를 위해 아세안에 4강 수준으로 중요성을 부여하고, 강대국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아세안에 접근하기로 함.
 - 정부는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를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의 3P 공동체로 구축하기로 함. 즉 ‘사람 중심의 국민외교’, ‘국민이 안전한 평화 공동체’, 그리고 ‘더불어 잘사는 상생 협력’을 목표로, 교통, 에너지, 수자원관리, 스마트정보통신 등 4대 부문을 중점적으로 협력할 계획임.

- 신남방정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경제권에 대한 정치경제적 외교의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경제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아세안은 이미 한국 제 2위의 수출시장으로서 중국의 보완시장 역할을 하고 있음. 신남방정책은 그 동안 생산기지와 시장으로서만 이용하던 아세안을 호혜적 공동번영을 추진하는 동반자로 전환시킨다는 데 큰 의의를 갖고 있음.
 - 현재 인도는 Act East Asia 정책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과 연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인도가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면 동북아-아세안-인도로 연결되는 인구 35억의 대규모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아시아 회랑의 형성에 대비하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데도 큰 의미가 있음.

나. 신남방정책의 배경

- 세계경제는 21세기 동안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패권의 교체를 맞아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것이며 양국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 한국 역시 큰 리스크에 직면할 것임.
 - 중국의 구매력평가 GDP는 2014년부터 미국을 상회했고, 양국 경제규모 차이는 향후 더 커질 것임. 경제를 제외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서 미국의 우위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세계체제는 불안정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냉전체제에서 외교의 다변화를 통해 독립성을 제고해야 함.
 - 한국경제는 1990년대까지 미국시장,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시장을 활용하여 성장했음. 아직 정치적으로 미국의존도가 큰 가운데 미중 양국의 갈등은 한국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므로 패권 야망이 없는 국가와 연계가 필요함.
- 미중간 경쟁에 따른 무역갈등도 세계 무역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필요성도 증가함.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2017년 8,000억 달러 정도로 이 중 약 절반이 중국에 대한 적자였고, 베트남에도 3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함. 우리나라에 대한 적자는 229억 달러였으나 중국과 베트남의 대미국 수출 중에는 한국 상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우리도 미국의 보호주의 압력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임.
 - 지난 30여 년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했음.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으나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음. 결국 미중 시장의 보완시장 발굴이 필요하고 신남방지역은 중요한 잠재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세계질서 구축에서 정치협력 파트너의 다변화, 지정학적 야망과 관계없는 중견국 통합체와의 협력,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의 발굴은 우리의 위상제고에 필요함.
 - 기존 4강 중심의 외교를 벗어나 아세안 및 인도와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세계경제질서의 안정화에 기여해야 할 것임. 아세안 및 인도와는 기존 FTA를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음.
 - 특히 아세안은 한국 제 2위 수출시장이고, 한국 대중문화의 주요 소비 시장이지만 그 동안 그에 걸맞은 외교적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음. 아세안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들의 국제적 시민의식 함양도 시급한 과제였음.

2. 신남방 국가의 경제현황과 특성

가. 신남방 국가의 경제현황

- 동남아 10개국이 결성한 아세안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했으나 인도는 대내지향적 성장전략을 추진함.
 - 아세안을 결성한 동남아 10국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선발아세안국가는 1980년대 수출주도형 외국인투자를 집중 유치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CLMV라고 불리는 후발 아세안 국가 역시 1990년대 이후 개방과 함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음.¹⁾
 -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 인해 아세안은 무역의존도가 높음. 2016년 아세안 전체의 무역의존도(무역액/GDP)는 한국의 무역의존도 64%보다 훨씬 높은 80% 이상임. 무역의존도가 높은 아세안은 해외 경제여건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됨.
 - 인도는 1990년대 이전에는 대내지향정책으로 아시아의 성장 대열에서 낙오하여 아직도 1인당 GDP가 1700달러 수준에 불과하고, 제조업 부문의 발전이 더뎠다. 무역의존도도 낮음. 인도는 대규모의 인구로 시장 잠재력이 크고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임.

1) 선발아세안 중에서도 필리핀은 경제발전이 지체되었으며, 석유자원이 풍부한 브루나이는 인구 40만 명의 소국이기에 때문에 공업화가 필요 없었음. 최근 베트남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실상 베트남의 수출규모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보다 더 많아졌음. 따라서 CLMV라는 전통적인 분류는 의미가 없어졌음.

표 1 신남방 대상국가의 주요 경제지표(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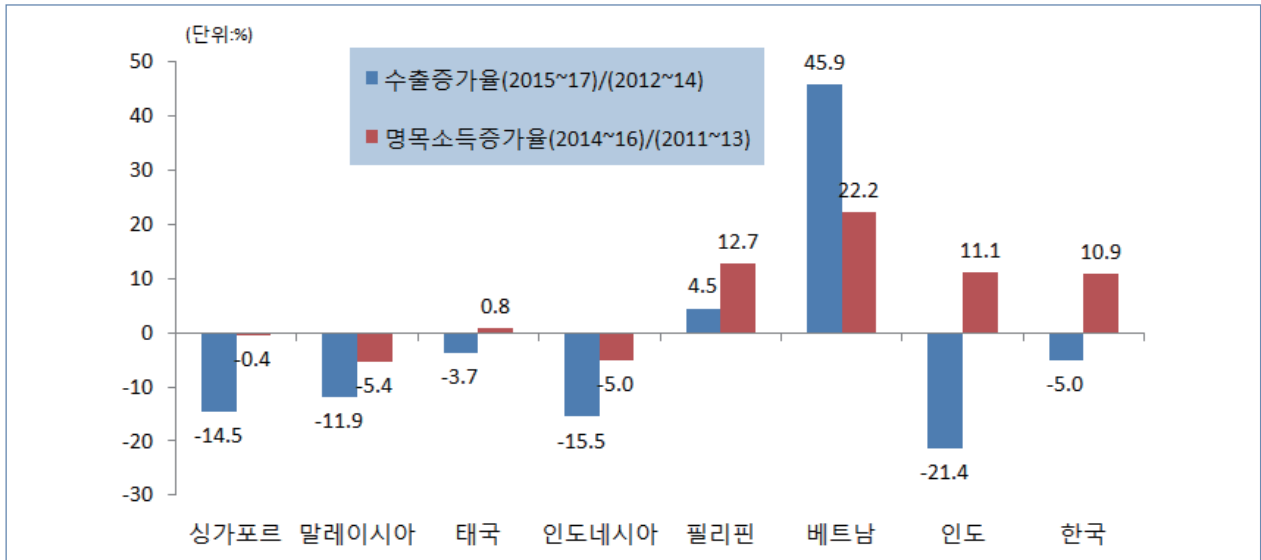
대상 국가	인구(만명)	GDP(억달러)	1인당 GDP	수출(억달러)	수입(억달러)	무역의존도(%)
아세안계	63,863	25,547	4021	11,410	10,792	86.9
- 캄보디아	1,576	200	1,269	100	126	113.0
- 인도네시아	26,112	9,323	3,570	1,445	1,357	30.1
- 말레이시아	3,119	2,964	9,502	1,894	1,684	120.7
- 미얀마	5,289	674	1,275	110	166	40.9
- 필리핀	10,332	3,049	2,951	563	863	46.8
- 싱가포르	561	2,970	52,961	3,298	2,829	206.3
- 태국	6,886	4,068	5,908	2,153	1,947	100.8
- 베트남	9,270	2,026	2,186	1,768	1,742	173.2
아세안계	63,863	25,547	4021	11,410	10,792	86.9
인도	132,417	22,638	1,710	2,644	3,598	27.6
한국	5,125	14,113	27,539	4,954	4,062	63.9

주: 무역의존도는 무역액(수출+수입)을 GDP로 나눈 것임. 자료: 세계은행

- 최근 수년간 신남방 국가 경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경제적 성과가 부진함.
 - 아세안 주요국 중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은 소득이 증가한 대신, 싱가포르와 태국은 정체 상태이며 말레이시아는 오히려 감소했음. 수출에서는 베트남의 수출이 급증했고 필리핀도 약간 증가했으나 다른 국가들은 감소했음. 특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수출이 대폭 감소했음. 인도는 소득은 증가했으나 수출은 2013년 3,300억 달러 수준에서 2017년 2,100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음.
 - 이와 같은 수출의 부진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일부 원인이지만 주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기 때문임. 선발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 경쟁하는데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음.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고용과 생산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미성숙단계의 탈공업화(premature disindustrialization)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²⁾

2) 하버드 대학교의 다니 로드리크(Dani Rodrik) 교수는 후발 공업화 국가들의 탈공업화는 기존 선진국의 탈공업화 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미성숙 탈공업화(premature deindustrialization)라고 주장하는데 선진국의 탈공업화가 기술진보 때문에 나타나지만, 미성숙탈공업화는 국제무역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그림 1 신남방 국가의 1인당 소득과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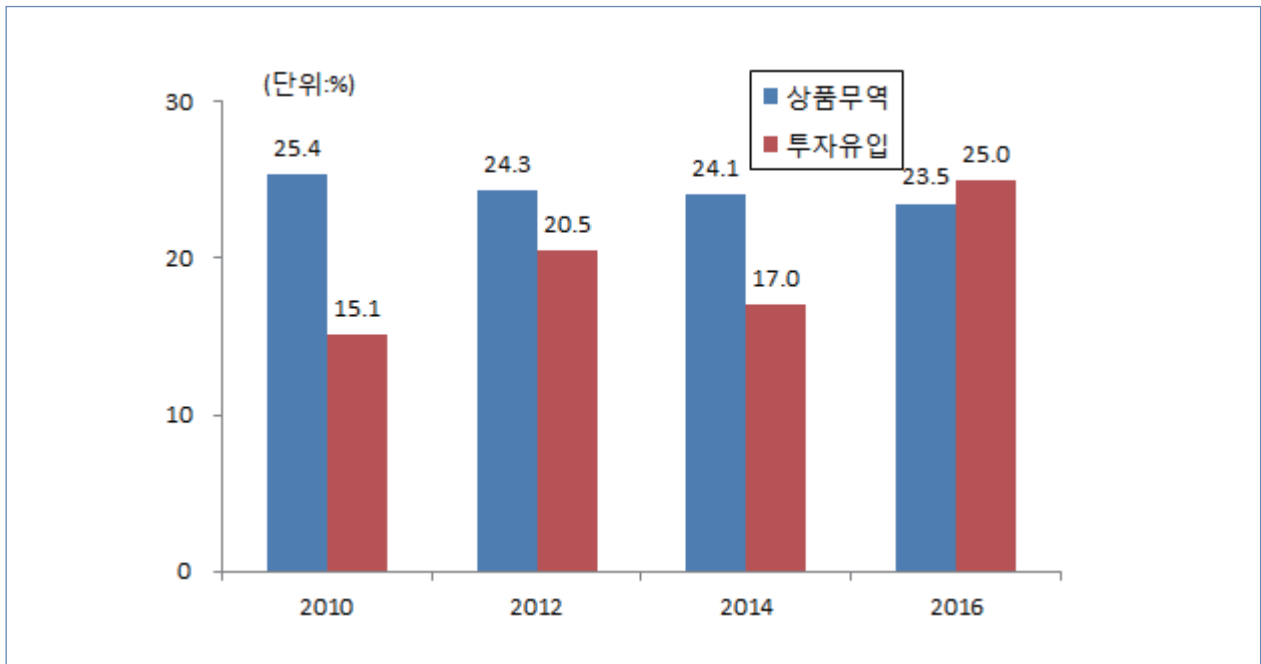
자료: 무역통계는 ITC, 1인당 GDP 통계는 세계은행

나. 아세안 경제공동체

- 아세안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역내통합을 가속해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를 출범시켰음.
 - 아세안 주요국은 고도성장의 부작용으로서 형성된 버블과 외환시장 관리에 실패하면서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었음. 이후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협력을 가속화해 2015년 말에는 아세안공동체를 출범시켰음. 아세안공동체는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아세안경제공동체,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세안경제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
 -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아세안을 단일시장과 생산기지로 만들고, 아세안을 경쟁력 있는 통합체로 전환하며, 역내 국가 간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추진 중임. 예컨대 하나의 시장은 아세안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AFTA)로 역내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이며, 단일 생산기지는 아세안종합투자협정(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ACIA))을 실현시켜 장벽이 없는 투자지대를 만든다는 것임.
-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세계경제에서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역내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EU와 같은 정도로 통합된 것은 아님.
 - 통합 아세안은 인구 세계 3위, 경상 GDP 6위,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PPP) GDP는 중국, 미국, 인도에 이은 4위임. 상품 수출은 4위, 수입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통합체임. 아세안의 인구는 2050년까지 7.9억 명으로 증가하여,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과 중국에 비해 잠재력이 큼.

- 아세안이 경제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세안 내에서 무역과 투자의 비율은 2016년 각각 23.5%와 25.0%로 아직 낮은 수준임. EU의 경우 역내무역비율은 대체로 6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음. 아세안의 인구가 EU의 인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아세안이 선진국으로 발전한다면 장기적으로 역내 교역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³⁾

그림 2 아세안 역내 무역과 직접투자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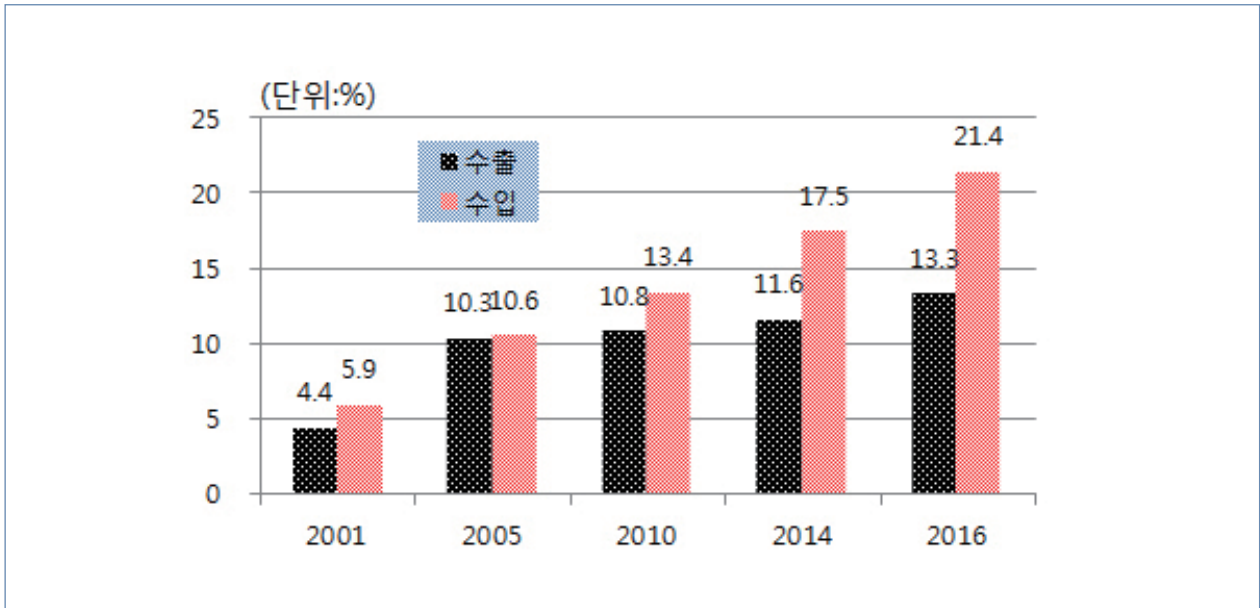


자료: 아세안 사무국

- 아세안의 역내 경제통합 효과가 기대만큼 커지지 않은 가운데 아세안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아세안이 중국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아세안은 아세안에 진출한 외국 투자기업이 노동집약적 소비재를 미국 및 유럽 등에 대한 수출하고, 외국기업이 최종 조립품을 생산하기 위해 부품과 중간재를 수입하는 무역구조를 갖고 있었음. 아세안 수출상품은 세계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었을 뿐 중국 제품이 아세안에 진출하지는 않았음.
 -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중국으로 외국기업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중국 상품은 세계시장뿐만 아니라 아세안 시장까지 급격히 침투했음. 아세안은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수요가 증가한 원자재 수출을 늘렸으나 공산품 수입을 대폭 늘리면서 2016년 현재 아세안 전체 수입의 21% 정도를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음. 국가별로는 베트남의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이 29% 수준에 이르고 있음. 즉 아세안은 중국 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중국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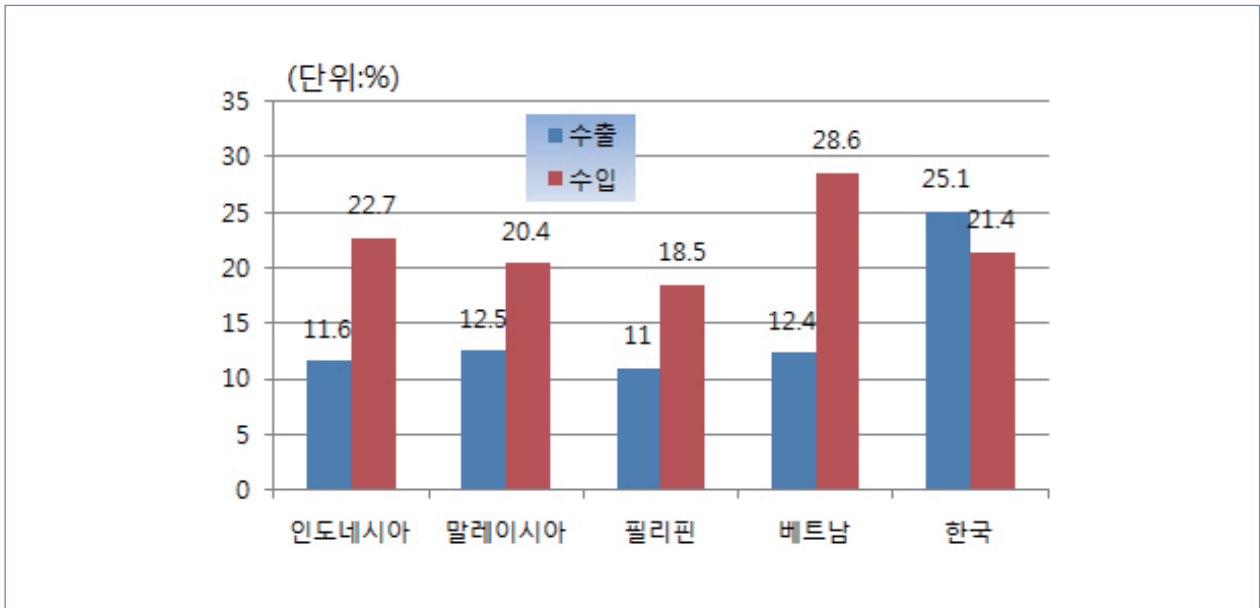
3) 즉 아세안은 국가 간 경제발전 수준이 다르고 경제규모도 큰 차이를 보여 역내 분업 수준이 낮음. 이 때문에 역외 국가와의 교역이 훨씬 많고 투자 역시 역외국가로부터 더 많이 유입되고 있음. 역내 직접투자비율은 점증하고 있으나 단일시장 추진에도 불구하고 역내무역 비율은 증가하지 않고 있음.

그림 3 아세안수출입에서 중국의 비중 추이



자료: 아세안 사무국, 한국은 무역협회 자료 이용 필자작성

그림 4 주요국별 대중국 수출입의존도



자료: 아세안 사무국, 한국은 무역협회 자료 이용 필자작성

3. 한국과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협력

가. 현재 협력구조의 현황

- 한국에게 아세안은 무역과 투자에서 중요한 경제협력지역이지만 인도는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은 아직 활발하지 않음.
 - 한국기업은 198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노동집약적 업종의 투자를 시작했고, 1990년대 초반에는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베트남에도 투자가 시작되었음. 투자와 함께 현지투자기업에게 부품, 중간재, 소재를 수출하면서 수출이 급증했음. 한편 우리는 아세안으로부터 석유, LNG, 기타 천연자원을 수입하고 있음.
 - 대아세안 수출은 2017년 952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6.6%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수출 1,421억 달러 24.8%보다 적지만 미국 686억 달러, 12%, 그리고 EU 540억 달러, 9.4%에 비해서는 훨씬 많아 아세안은 명실상부한 한국 제 2위의 시장임.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2010년 11.4%에서 2013년 14.7% 등으로 계속 증가했고 특히 베트남에 대한 수출이 빨리 증가했음.

표 2 한국의 지역별 수출 추이

(단위: 억달러, %)

	2010		2013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국	1,168	25.0	1,458	26.1	1,244	25.1	1,421	24.8
일본	282	6.0	347	6.2	244	4.9	268	4.7
아세안	532	11.4	820	14.7	745	15.0	952	16.6
-베트남	97	2.1	211	4.1	326	6.6	478	8.3
인도	114	2.4	114	2.0	116	2.3	151	2.6
미국	498	10.7	621	11.1	665	13.4	686	12.0
EU	535	11.5	489	8.7	466	9.4	540	9.4
전체	4,664	100.0	5,596	100.0	4,954	100.0	5,737	100.0

자료: 무역협회

- 투자에서도 아세안은 미국, 중국에 이은 한국의 중요한 투자지역이며 특히 중국과 함께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한 지역임.
 -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2018년 3월 누계 569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의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부문 투자는 251억 달러로 총 제조업 해외투자의 19.3%를 차지하고 있음. 아세안 투자 중 제조업 부문 투자는 44.2%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76.9%에 미치지 못하지만 전체 평균 31.6%보다는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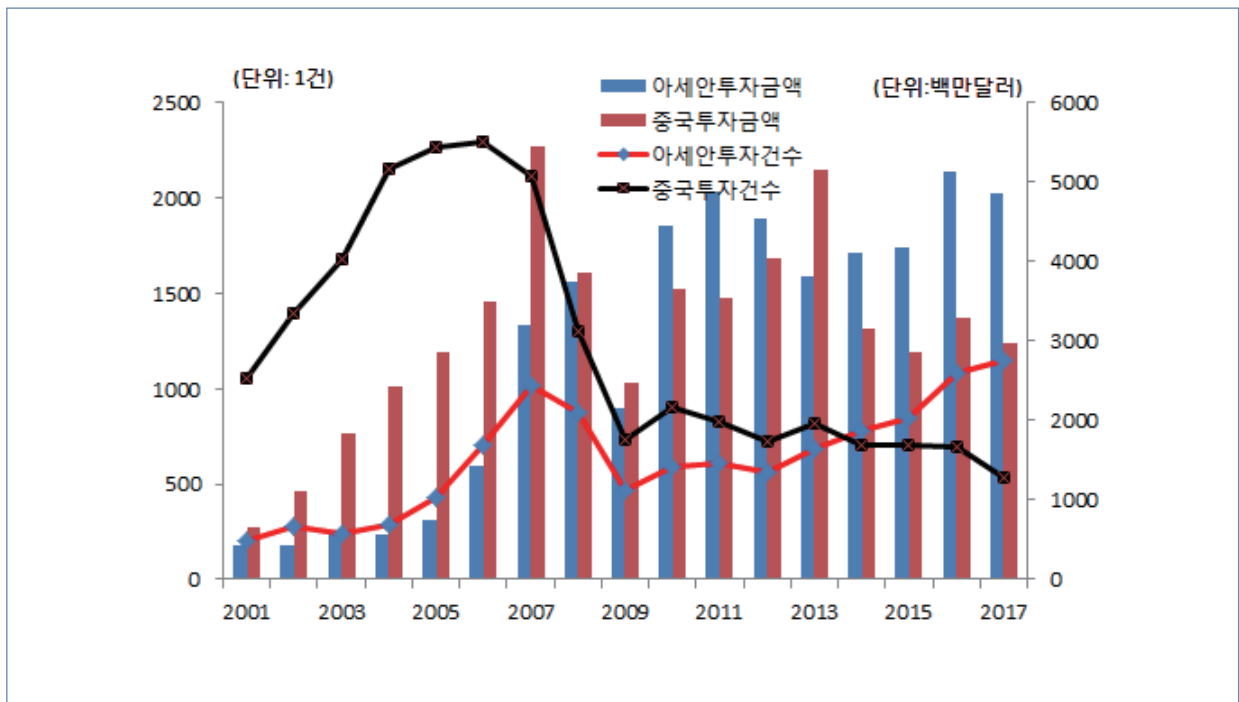
-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최근 급속히 증가했는데, 최근 중국의 생산비의 상승과 투자환경 악화로 아세안이 대체지역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음. 그 결과 투자건수에서는 2014년부터 아세안에 대한 투자가 중국 투자를 상회하게 되었고, 투자금액에서는 2013년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계속 아세안 투자가 중국 투자를 상회함.

표 3 한국기업의 지역별 투자(2018.3월말)

	전산업		제조업		제조업 비중
	금액(억 달러)	비중(%)	금액(억 달러)	비중(%)	(%)
아세안	4,113	100.0	1,302	100.0	31.6
-베트남	569	13.8	251	19.3	44.2
중국	184	4.5	113	-8.7	-61.2
미국	603	14.7	464	35.6	76.9
EU	964	23.4	173	13.3	18.0
인도	537	13.1	129	9.9	24.1

자료: 수출입은행

그림 5 아세안과 중국에 대한 투자 비교(2001~2017)



자료: 수출입은행 통계 이용 필자작성

- 한국과 신남방지역과의 경제협력은 한국 기업의 일방적 투자와 고착된 한국의 흑자구조로서 투자의 경우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투자가 이동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하지만 무역주조의 불균형은 한국-아세안 협력의 중요한 특징이나 문제임.

- 한국은 신남방국가에 대해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무역규모가 큰 아세안에 2017년 4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무역규모가 작은 인도에 대해서도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아세안과의 흑자에서는 선발 아세안과 CLMV 국가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함. 최근 선발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축소되었지만 CLMV 국가와는 교역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흑자도 급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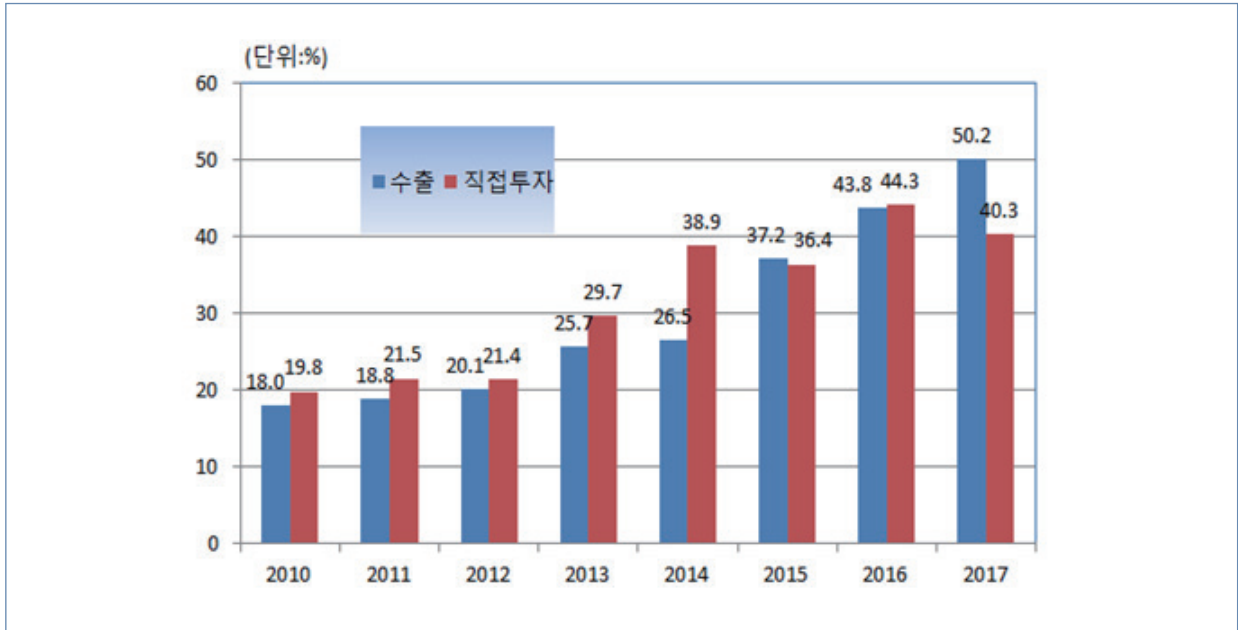
표 4 한국과 신남방 지역과의 무역

		2005	2010	2014	2017
무역규모	아세안 전체	535	973	1,380	1,490
	- 선발아세안	498	831	1,052	831
	- CLMV	45	142	328	661
	인도	67	171	181	200
무역수지	아세안 전체	13	91	312	414
	- 선발아세안	-16	21	160	93
	- CLMV	29	70	152	321
	인도	25	58	75	101

자료: 무역협회 자료 이용 필자작성

- 특히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증가하면서 한-베트남 사이에 경제협력의 비대칭성이 확대되고 있음.
 -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한국기업이 1990년대 초반부터 베트남에 투자를 한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삼성전자 등 기술업체까지 대규모 투자를 했음. 한국 투자는 베트남 성장에 기여했지만 대베트남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도 급증함.
 - 이러한 불균형은 한국의 대아세안 경제협력에 착시를 낳게 함. 아세안 협력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선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은 정체되고 베트남과의 협력이 급증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 실제로 2017년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아세안 전체 수출의 50% 이상이 되었고 투자도 40% 이상인데 이는 2010년의 18.0%와 19.8%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임.

그림 6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 및 수출에서 베트남의 비중



자료: 무역협회와 수출입은행 자료 이용 필자작성

- 한편 인도는 잠재력이 큰 나라지만 우리기업의 대인도 교역과 투자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 상태
 - 인도는 제조업 부문의 취약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많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인도는 오랫동안 수입대체형 전략을 택하면서 수출 가능한 제조업을 육성하지 못했음. 현재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Make in India”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출규모는 수년 동안 오히려 감소했음.
 -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등 동아시아 지역의 대인도 경제교역은 극히 낮은 수준이어서 각국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인도의 비중은 최대 3% 수준에 불과함.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가 인도와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계속 수입을 확대할 수는 없을 것임.

표 5 동아시아 국가의 대인도 교역(2017)

(단위:억 달러, %)

	교역규모			비중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한국	151	49	102	2.6	1.0
중국	681	163	518	3.0	0.9
일본	88	53	35	1.3	0.8
아세안 (2016)	376	208	168	3.3	1.9

자료: 각국 무역통계

나. 바람직한 협력 방안

- 신남방국가와 경제협력이 장기적으로 양측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지속적 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고려한 협력이 필요함.
 - 아세안 및 인도 경제의 문제는 제조업의 낮은 경쟁력이 제고되지 않고 오히려 둔화되면서 경제적 역동성도 낮다는 것임. 아세안과 인도의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제조업의 발전없이 성장은 불가능함. 신남방국가는 제조업의 개발을 위한 직접투자 유치, 부품 및 중간재 산업의 육성에 노력할 것이므로 우리 기업은 이러한 기조에 부응하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함.
 - 동시에 신남방 국가의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통한 성장추진도 고려되어야 함. 아세안의 경우 역내의 개발격차 축소를 통한 성장을 위해 인프라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인도도 인도-아세안 연계에 중요한 정책적 관심을 갖고 있음. 신남방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ODA를 확대해야 할 것임.
-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호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역에서 나타나는 불균형 해소가 중요함.
 - 현재의 불균형은 한국의 일방적인 투자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라고 할 수 있음. 투자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쌍방간의 투자를 확대하기는 어려지만 교역의 경우 정책에 따라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음.
 - 불균형 해소는 원칙적으로 양측의 무역이 확대되면서 해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양측에서 공동으로 수출과 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우리는 아세안 저개발국으로부터 원료의 수입 확대, 생산제품의 역수입 등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아세안 중에서는 경제협력 정도가 취약해지는 선발아세안 국가 및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아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 역할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들의 내수시장은 일본의 현지 진출기업의 생산제품과 중국의 수입품이 장악하고 있음. 선발아세안 시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아세안 협력의 균형을 추구함과 동시에 이들의 성장과정에 참여해야 함.
 - 인도의 경우 비록 내수시장이 크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규제 때문에 현지 내수시장 진출이 용이하지 않음. 더구나 인도는 수출을 통한 외화가득을 증대해야 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수출형 제조업체의 진출이 바람직함. 또한 인도는 2014년 이후 Act East Asia 정책을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적 정치적 협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동북아와의 협력도 추진함. 아세안-인도를 연결하는 전체적인 구도 하에서 우리 협력 방안을 수립해야 함.

4. 한국 중소기업의 참여방안

- 신남방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함.
 - 첫째, 신남방 국가의 잠재력과 발전방향을 충분히 고려
 - 둘째, 한국과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협력 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고려
 - 셋째, 현재 국내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향을 고려
- 아세안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려 할 것이며 여기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분야를 발굴.
 - 동남아 주요국은 제조업 경쟁력 하락에 직면하여 기술 제고를 주요한 경제정책으로 삼고 여전히 외국기업의 투자를 환영함. 아세안 선발국들은 IT 등 제 4차 산업혁명 관련 제조업의 투자, 반면 CLMV 국가들은 고용창출이 가능한 노동집약적 제조업 투자의 유치에 관심을 갖고 있음. 아세안 제조업은 중국의 생산력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틈새 기술을 가진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틈새시장에서 활동하는 현지기업과의 합작 혹은 현지 중소기업의 M&A를 통해 직접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음.
 - 아세안을 단일 시장과 생산기지로 전환한다는 아세안경제공동체에서도 제조업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제조업 발전을 위해 아세안은 역내의 물적, 제도적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MPAC)을 추진 중임. 인프라 개발에는 많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며 우리 중소기업은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동시에 아세안은 서비스 산업에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관광, 대중 예술, 교육, 유통 등은 아세안 국가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임. 한국의 중소 서비스업체의 현지 진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아세안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에서 균형을 요구할 것이며, 우리도 이에 부응하여 ODA를 확대하고 기술 및 중소기업 협력도 강화할 가능성이 큼.
 - 현재 중국과 일본은 아세안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ODA를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아세안이 요구해도 우리 정부가 일본 및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ODA를 지원할 수는 없으나 IT분야, 농업분야, 자연자원 가공분야 등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ODA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지원할 필요는 있음. 우리 중소기업은 이런 분야에 정부와 협력하여 참여를 확대해야 함.
 - 한국과 아세안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에서 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세안의 자원분야에 직접투자를 해서 개발 수입을 할 수 있고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투자를 지원하여 생산제품을 역수입할 수도 있을 것임.

- 조립 대기업들은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가속하고 중국에서 수입도 증가하여 국내에서 중소기업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과 인도 시장 개척에 노력.
 - 우리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에서는 독자적인 기술과 풍부한 자본이 있으나 내수형 기업으로 국제화 경험이 부족한 기업이 많은바, 이런 내수형 중견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음식료품 제조업과 유통, 금융, 정보통신 등 서비스 산업부문이 해당됨.
 - 이러한 분야에서 중견기업이 아세안과 인도에 진출할 때 중소기업은 현지에 동반 진출이 가능할 수 있음. 예컨대 베트남에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진행 중이며 우리 중견기업은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도 기회를 발굴 할 수 있을 것임.
 - 한국 벤처 산업의 발전에 기여했던 벤처 캐피탈의 동남아 및 인도 현지진출로 현지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리 중소기업과 연계시켜 발전할 기회도 모색해야 함. 동시에 아세안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에 한국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해야 함.

참고문헌

박변순(2011). 동남아 자원수출국의 수출 구조 변화와 의의. SERI 경제포커스 제 354호, 삼성경제연구소.

Rodrik, Dani(2015), "Premature Deindustrialization," NBER Working Paper No. 20935.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

한국무역협회 수출통계 DB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DB
